빅히트, 세계 3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그룹과 맞손

UMG 품은 빅히트, 글로벌 보이그룹 만든다

내년 美 오디션…"전례 없는 그룹"
"UMG와 함께 음악사 새로 쓰겠다"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루시안 그레인지 유니버설뮤직그룹 회장·존 재닉 인터스코프 게펜 A&M레코드 회장·윤석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글로벌CEO(왼쪽 위부터 시계방향)가 18일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케이팝 보이그룹" 데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유니버설뮤직그룹

"전례 없는 그룹이 될 것이다."

케이팝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과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방탄소년단을 글로벌 그룹으로 키운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와 세계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UMG)이 케이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 경영진들은 18일 오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전략적 협업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윤석준 빅히트 글로벌 CEO는 이날 "빅히트가 지난 16년간 정립해 온 '성공 방정식'을 UMG와 함께 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 적용하는 이번 협업은 산업을 넘어 문화의 결합인 동시에 음악 산업의 새 가능성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2년 미국 오디션…글로벌 보이그룹 론칭

양사의 전략적 협업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미국 시장에서 선보일 케이팝 보이그룹이다. 선발 방식은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고, 미국 내 미디어 파트너사와 함께 2022년 방송을 목표로 제작한다. 빅히트와 UMG 산하 게펜 레코드가 합작 레이블을 설립해 LA에 본사를 두고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빅히트는 아티스트 발굴과 트레이닝, 팬 콘텐츠 제작, 팬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담당한다.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이들이 "케이팝의 시스템"에 따라 활동한다는 방식이 새로운 시도다. 세계 주류 음악으로 떠오른 케이팝의 노하우를 현지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윤 CEO는 "전례 없는 그룹의 탄생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계 음악시장의 중심인 미국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있다"며 "케이팝은 음악, 퍼포먼스, 패션, 뮤직비디오, 팬과의 소통이 결합된 풀 프로덕션이라는 점에서 UMG에서도 빅히트로서도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방시혁 빅히트 이사회 의장 겸 대표이사도 "UMG가 세계 음악시장에서 쌓아온 영향력과 노하우, 빅히트의 시도가 결합한다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글로벌 음악사에 새 시대를 열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새로운 시도로 UMG 소속 아티스트들이 빅히트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순차적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그레이시 에이브럼스, 뉴 호프 크럽, 알렉산더 23 등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나대자 여사·홍동심…홍현희, '부캐'만 몇개야?

채널A '금쪽같은' 등 4개 예능 활약
다양한 매력 강점…유튜브 소통도

홍현희

개그우먼 홍현희가 '부캐'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를 기세다.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MBC '놀면 뭐하니?' 등에서 각기 다른 '부캐'(부캐릭터·원래 모습 아닌 다른 캐릭터)로 활약하면서 재미를 불어넣고 있다. 친근한 매력과 노련한 입담을 무기삼아 대중의 호감까지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홍현희는 13일에 이어 20일 방송하는 '놀면 뭐하니?'의 '2021 동거동락' 특집편에서 '나대자 여사'라는 캐릭터로 참여한다. "개그계 대모"라는 설정 아래 진한 메이크업에 화려한 장신구와 털 코트를 차려입고 독특한 말투를 사용해 웃음을 유발한다. 조병규·김혜윤 등 배우부터 더보이즈 주연·이달의 소녀 츄 등 아이돌 멤버까지 예능 촬영이 낯선 각양각색의 출연자들을 살뜰히 챙기면서 '특집의 구심점'이란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 같은 '부캐'의 활약은 '금쪽같은 내 새끼'에서도 이어진다. 부모 시청자들의 육아 고민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홍동심'으로 활약 중이다. 부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이의 마음을 끄집어내 육아전문가 오은영 교수도 "든든한 존재"로 꼽고 있다. 최근에는 "준비된 예비 엄마로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살필 것"이란 각오를 담아 '홍준마'라는 새 '부캐'도 만들었다.

이처럼 다양한 매력으로 시청자에 다가간 덕분에 무려 4개의 예능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하고 있다. 활발한 방송 활동을 토대로 후배 개그맨들의 예능 출연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지난달 '놀면 뭐하니?'의 '예능 원석' 특집에서도 김해준·이은지 등 개그맨들의 조력자로 참여했다. 당시 함께 출연한 개그우먼 김승혜는 18일 "홍현희 덕분에 편하게 촬영을 했고, 이후에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남편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제이쓴과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홍쓴TV'로 대중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2번이나 겪은 자가격리 과정을 솔직하게 그려 화제가 됐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조선팝어게인' 일본 건축물 무대 배경 논란

설 특집으로 방송한 KBS 2TV '조선팝어게인'이 일본 건축물을 무대 배경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18일 "일본성을 의도적으로 카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과 일부 시청자들은 '조선팝어게인'에서 밴드 이날치가 선보인 '여보나리' 무대 배경으로 사용된 용궁 이미지가 일본의 성인 '천수각'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관련 이미지는 상상 속의 용궁을 표현한 것"이라며 "용궁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레퍼런스와 애니메이션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편함을 느낀 시청자분들께도 죄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다시보기 서비스 영상은 삭제했다.

BTS 제이홉, 장애아동 위해 1억5000만원 후원

제이홉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장애아동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더했다. 18일 아동옹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제이홉이 이날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장애아동을 위한 후원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이홉은 재단 측을 통해 "이번 기회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 및 청각장애아동들의 보육비와 학습비, 시설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이홉은 2018년 인재양성 및 환아를 위해 1억5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현재까지 총 6억원을 후원했다.

램버트, SBS '보헤미안…' 동성 키스 편집 비판

아담 램버트

세계적인 밴드 퀸의 객원보컬 아담 램버트가 설 연휴 SBS에서 방영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편집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램버트는 미국 성소수자 잡지 '아웃'이 18일(한국시간) 공식 SNS에 올린 관련 논평에 "그들은 퀸의 노래를 주저 없이 틀 것이다. 이중 잣대는 정말로 존재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아웃'은 SBS가 영화의 주인공인 퀸의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 연인 짐 허튼과 입을 맞추는 장면 등을 삭제한 것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